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 34장의 신학적인 담화-

박영복*

들어가는 말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메시지는 많은 학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파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생활 등의 사건들이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와 관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¹⁾ 또한 에스겔서는 메시지의 배열이 고도로 구조화된 성경책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²⁾ 그러나 메이필드(Mayfield)의 지적처럼,

* 백석대신학대학원 강사, 구약학

- 1) 이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synchronic approach)로는 렌즈(Renz), 조이스(Joyce), 클라인(Klein) 그리고 아크로이드(Ackroyd)의 견해를 살펴보라.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Leiden: Brill, 1999), 105-106;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JSOT Press, 1989), 104-105; Klein,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96;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London: SCM Press, 1963), 104-117. 그리고 최근의 통시적 연구(diachronic approach)에 대해서는 조이스와 메이필드(Mayfield)의 논의를 참고하라. Joyce, *A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9), 7-6;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7-28.
- 2)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1. Cf. 각주 3을 참조하라.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내부구조를 연결 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효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³⁾ 그렇게 된 원인으로, 에스겔서의 본문은 많은 반복구와 공식들(formulas)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졌고⁴⁾ 일련의 중단과 시작('a series of stops and starts')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록(Block)은 에스겔 본문의 이러한 현상을 다양한 그리고 반복적이고 분열적인 선지자적 공식들('prophetic formulae')이 본문(text)을 작은 단편들로 자르고 있다⁶⁾고 설명한다. 즉, 에스겔 본문의 독특한 특징인 복잡하고 단절적인 형태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메이필드의 비판과 같이, 필자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연구할 때, 에스겔 본문의 독특하고 복잡한 반복구들을 적절히 다룸으로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문의 단락을 결정하고 메시지를 탐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룰 때에도 본문의 구조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에스겔 36장의 연구에 대하여, 탈스트라(Talstra)는 본문에 표현된 언어적 정보에 더욱 집중하라고 충고를 한다. 어디까지가 직접화법(direct speech)의 부분이고, 본문에서 참여자들(participants)의 움직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것이다.⁷⁾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본문 수준(text-level)의 언어

3)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8.

4) Block,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EPC, 1997), 30-39.

5) Allen, *Ezekiel 20-48* (Dallas: Word Books, 1990), 170.

6) "Numerous repetitive and disruptive prophetic formulae appear to chop it up into little fragments. Inde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Yahweh is addressing his messenger and when he is addressing the mountains." Block,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EPC, 1998), 322.

7) Talstra, "In the Beginning, when Making Copies used to be an Art...: The Bible among Poets and Engineers", Wido van Peursen, Ernst D. Thoutenhoofd and Adriaan van der Weel, eds., *The Production of Presence and Meaning in Digital Text*

학적 표시들, 즉, 참여자들의 움직임, 담화에서 화자(speaker)와 청자(addressed)의 움직임, 참여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본문 경계의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하라는 말이다. 또한 이런 조언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언어적 데이터에 의해 표현된 자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의 언어적 자료들을 무시할 경우, 선정된 신학적인 주제는 본문으로부터 오히려 분리되어 일반화된 주제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완(Gowan)의 경우, ‘언약’(겔 16:16; 20:37; 34:25; 37:26)과 언약공식(‘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20; 36:28; 37:23; 37:27),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공식(‘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겔 34:30) 등을 본문에서 선별하고 “인류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하고 밀접한 상호관계의 조화를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다.⁸⁾ 본문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일반적인 신학적 진술에 있어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신학적 진술이 과연 그 본문의 담화의 중심 사상일까 혹은 주변 단락들의 주제와 담화적 기능에 부합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어휘수준(word-level)에서의 신학적 주제는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신학적 함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반면에 신학적 진술에 있어서, 본문에 드러나 있는 언어적인 데이터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큼이나 기능과 상호 연관성의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아야 한다.

본 논고는 에스겔 34장의 회복의 메시지에 관한 소고이다. 에스겔 34장의 담화(discourse)를 본문-언어적 분석(text-linguistic analysis)을 통하여 본문의 계층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계층구조의 구성에 밀

Scholarship (Leiden: Brill, 2010), 52.

8) “the aim of making changes in human nature itself was to establish a permanent close relationship of harmony between God and his people.” Gowan, Donald E.,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135.

반침이 된 이 본문-언어학적인 분석은 어휘수준이라기 보다는 본문수준(text-level)의 언어적 표지에 집중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에스겔서의 복잡하고 단절적인 본문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본문의 구조가 하나의 담화로써 들려주는 신학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타난 일반화된 신학적 어휘나 주제를 선택하여 담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의 화자와 청자를 주목하면서 각 단락들의 이슈들이 어떻게 발견되고 전개되는지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담화를 통하여 에스겔 34장의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본문-지향적 독법(A Text-Oriented Reading)

20세기 초반까지 에스겔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자와 통일성에 관한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운 듯 보였다.⁹⁾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조직적이고 주제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의 명료한 배열(‘*perspicuous arrangement*’)¹¹⁾로 인하여 전체의 책이 한 사람의 저작으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다. 곧이어 통일성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¹²⁾ 특히, 특이한 용어들의 사용,¹³⁾ 편집된 본문을 문맥에 주제적으로 적용시킨 용례,¹⁴⁾

9)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21;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17.

10) “it is arranged in a systematic and thematic way.”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21.

11) Childs, *Introduction of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Portress Press, 1979), 365.

12) 에스겔서의 편집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조이스의 책을 참고로 하고 저작권의 역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메이필드의 책을 살펴보라. Joyce, *A Commentary*, 7-6;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17-28.

문법 혹은 모티브, 신학적 내용의 불일치¹⁵⁾ 등을 이유로 에스겔서에서의 희망적인 메시지에 대한 편집적인 증거들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학문적인 경향에 비추어, 최근 몇몇 학자들의 신학적 고찰과 편집역사연구에 관한 세밀한 관찰들은 에스겔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을 받을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간젤(Ganzel)은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메시지에 대한 이전의 통시적 연구들(diachronic studies)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부차적인 자료 혹은 편집적인 자료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¹⁶⁾ 그녀의 비평의 요지는 ‘문맥에서 이례적인 내용은 이차 자료에 해당한다’라는 선입견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각각의 회복의 관한 예언은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독특한 메시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⁷⁾ 결국 그녀의 비평은 이전 연구들의 관심이 본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자 혹은 저자의 문학적인 관심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두 번째로, 조이스(Joyce)는 이전 연구들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에스겔 34장 15절의 ‘하나님’이라는 참여자가 에스겔 34장 23절의 ‘다윗’이라는 참여자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13) Zimmerli,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1983), 319-320; Allen, *Ezekiel 20-48*, 204; Schwartz, “Ezekiel’s Dim View of Israel’s Resotration,” M. S. Odell and J. T. Strong, eds. (Atlanta: SBL, 2000), 53.

14) Block, “Gog and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Reflections on Ezekiel xxxix 21-9,” *VT* 37 (1987), 266-269; A. Klein, “Prophecy Continued: Reflections on Innerbiblical Exegesis in the Book of Ezekiel,” *VT* 60 (2010), 577.

15) Joyce, *A Commentary*, 11-12.

16) “Previous studies have dismissed these unique motifs (hopeful messages) as insignificant, either by suggesting textual emendations, by viewing the relevant passages as secondary, or simply by noting the atypical feature without providing any explanation.” Ganzel, “The Descriptions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Ezekiel,” *VT* 60 (2010), 200.

17) Ganzel, “The Descriptions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Ezekiel,” 210-211.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참여자의 변화는 편집의 증거로 간주될 수도 있고, 한 저자에 의한 ‘특징적인 모티브의 사용’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¹⁸⁾ 그렇다는 것은 주변 문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모티프와 이차적인 편집의 증거는 본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본문의 외적인 관심에 의해서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은 극명하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학자들의 견해, 즉,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모두 이차적인 자료이다’라고 주장한 헤르만(Herrmann, 1965)의 견해와 ‘그 책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일차적인 자료이며 에스겔 신학의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변화로 해석된다’라는 라이트(Raitt, 1977)의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때론 저작권(authorship)을 위해 제시된 증거는 선지자의 신학적 메시지의 이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¹⁹⁾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자료들이 본문의 문맥과 불일치하다’라는 평가는 본문의 의존한 증거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에 의존한다는 평가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서지 않을 경우에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메시지들의 불일치의 대해서 아무런 견해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본문 그 자체는 문맥에 일치되지 못하여 비정상적인 형태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해석학적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필자의 견해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본문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지향적 독법의 시도를 제안하며, 본문과의 소통을 위해 본문의 본문-언어적 데이터들에 더욱 관심

18) Joyce, *A Commentary*, 11.

19) “The view that a scholar holds concerning questions of unity and authorship in the book of Ezekiel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theology of the prophet are usually closely related - indeed, circularity of argument is an ever-present danger. ... The danger of built-in assumptions dictating results is all too evident, especially where theology is involved.” Joyce, *A Commentary*, 12.

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학자는 메이필드이다. 메이필드는 먼저 에스겔서의 주제적 연구(thematic study)에 대한 공시적 연구들(synchronic studies)과 통시적 연구들(diachronic studies)의 학문적 혼합현상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²⁰⁾ 그가 주장하기를, 에스겔서에서 최근 주제적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공시적 연구들과 통시적 연구들의 이슈를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본문의 내용에 의해 흔히 의미의 단위를 정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들의 연구들은 주제적인 연구와 내용 관련 요소들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험적인 연구들은 본문의 표면에 드러난 언어적인 정보들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본문의 구조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학재는 에스겔 34장을 어휘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선포(1-10절), 여호와와 양의 목자(11-16절),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약속(17-24절), 화평의 언약(25-31절) 등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²¹⁾ 그가 핵심적인 어휘들을 중심으로 교차대구법과 같은 구조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 34장의 담화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독립된 등가의 메시지

20) "The structure of Ezekiel has also been held hostage over the years by another criterion-cont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is seemingly synchronic issue of a text's content from the aforementioned diachronic issue of redaction history. Scholars often group together units of text within Ezekiel based on the content (e.g., theo-political message and historical audience) of the oracles, but then date those oracles,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o the same time period, to the same compositional level with the assumption that prophets/ authors/redactors only write similar content within the same time frame. So, it is not easy to discern whether content is the driving interpretative force or historical/redactional concerns. ... In summary, most structures of prophetic books typically use thematic, content-related factors as the unspecified criteria, while they ignore explicitly literary factors on the text's surface, factors such as formulas."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6-8.

21)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30.

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락의 연관 관계와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에스겔 34장 전체의 담화를 놓고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적인 어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담화의 언어적 구조가 말해주고 있는 단락의 기능과 연관관계, 즉 본문의 배열과 전체 구조는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의 주목할 만한 몇몇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분모를 요약해 볼 수 있다.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메시지에 관한 선험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그들의 본문 외적인 학문적 관심들, 예를 들어, 저자, 기원, 문학적 배치, 혹은 학자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조차도 해석학적인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여 본문을 다루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정보들을 등한시한 채 본문을 평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 본문의 언어적 정보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마땅하며, 본문의 구조와 본문 뒤의 세계를 연구하는 데에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²²⁾ 그러므로 필자는 에스겔 34장의 본문을 구문적인 구조와 참여자들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신학적 함의를 위한 세 단계의 본문-지향적인 독법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 독법은 ‘본문 중심 읽기’의 한 방법이며²³⁾ 에스겔 34장에 드러난 회복의 메시지가 본문에 표현된 언어적 장치들을 통해 그 언어적 구조와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시도이다. 이렇게 표현함은 에스겔 34장의 신학적 주제를 본문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두거나 어휘 중심의 성급한 일반

22) Talstra, “Deuteronomy 9 and 10: Synchronic and Diachronic Observations”, Johannes C. de Moor, ed., *Synchronic or Diachronic?: A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Leiden: Brill, 1995), 193.

23) 홍국평은 “저자-본문-독자의 삼중 구조와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성경 접근 방법으로서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지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독법의 분류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분류에 의하면, “본문 중심 읽기”에 해당하며 본문의 언어적 장치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홍국평, “책임 있는 해석학을 위한 제언,” 『Canon & Culture』 6 (2012), 116-123.

화를 벗어나 본문수준의 담화연구를 제안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본문 중심의 독법과 차이점은 언어적 장치들(linguistic devices)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²⁴⁾

2. 구문적 계층구조에서 담화까지

본문-지향적인 독법을 위한 첫 단계는 본문의 구문적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²⁵⁾ 그 계층구조는 단락의 경계를 구분해 줄 뿐만 아니라 각 단락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 줄 것이다. 일단 단락의 경계가 확립되면, 그 단락 내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²⁶⁾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락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통하여 전체 구조가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단락의 주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각 단락의 주제적 연구는 에스겔 34장의 전체 주제를 쌓아가는 하나의 벽돌(building block)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본문의 담화구조(discourse

- 24) 장성길이 언급한 본문의 구조 분석을 돕는 언어 장치들(linguistic devices)로 담론 표지어(discourse marker)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맞소리 본문의 단락 구분 표지들(delimitation marker)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하기 보다는 에스겔 34장의 히브리어 본문을 문법적으로 문장 단위로 절편을 만든 후, 언어적 구문적 연결을 시도하여 단락의 구분을 결정한다. 장성길, “에스겔 34장의 언어 장치들과 텍스트의 의미에 관한 소고” 『개혁신학』 22 (2010), 208-212.
- 25) 본 논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어떻게 본문의 계층구조를 형성하는가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본문의 계층구조의 구성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alton, *Experimenting with Qob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belet as Discours* (Maastricht: Uitgeverij Shaker Publishing, 2006), 15-34.
- 26) 참여자가 언제 담화에 참여했는지, 언제 다시 소개되는지 그리고 참여자가 고유명사, 일반명사 혹은 대명사로 소개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참여자가 소개되는 패턴에 따라 단락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Walton, *Experimenting with Qob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belet as Discours*, 40.

structure)를 구성하는 것이다. 담화수준에서 그 계층구조는 각 단락의 기능과 단락들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드러나게 한다. 첫 단계에서 분석된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각 단락의 주제들은 ‘어떻게 담화가 흘러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게 되는데, 각 단락의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평가적인 질문들, 즉,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담화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담화의 흐름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등은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잘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평가와 고찰을 하지 않고 본문에서 신학적 주제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어휘수준에 머무른 각기 다양한 주제들을 만들게 하고, 미성숙한 일반화된 신학적 진술들을 양산하도록 이끌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신학적 담화(theological discourse)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는 선형적인 두 단계를 거쳐서 분석된 담화의 신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구문적 계층구조에서부터 담화의 분석까지 일련의 연구 성과를 신학적 진술로 표현함에 있어서, 필자는 본문의 담화를 신학적 담화(theological discourse)라고 일컬었다.

이제 이러한 세 단계의 본문-지향적인 독법으로 에스겔 34장의 담화를 논의해 볼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첫 번째 단계인 에스겔 34장의 계층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미 구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²⁷⁾ 각 단락의 주제와 그 연관성을 분석해 볼 것이며(4.1과 4.2), 결론적으로 에스겔 34장 본문의 신학적 함의(4.3)를 살펴볼 것이다.

3. 에스겔 34장 분석

27) 에스겔 34장의 계층구조와 그 언어적 데이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Par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Bergambacht: Uitgeverij 2VM, 2013), 33-46.

에스겔 34장 01a²⁸⁾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וַיְהִי דְבַר־יְהוָה) וַיִּשְׁלַח’이라는 반복구절은 ‘Wayyiqtol + 명시된 주어’의 형태로 33장 21a(‘וַיִּהְיֶה + 시간표시’²⁹⁾)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35장 01a에서 이 반복구가 다시 출현하기까지 34장 01a-31e를 하나의 담화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³⁰⁾

에스겔 34장의 담화는 01a-02d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난 후에, 담화의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02e-10h와 11a-31e가 그것인데, 전자는 명백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수신자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의하여 목양을 받는 대상들’로 표현되고 있다. 각 단락이 이렇게 다른 수신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요 참여자들(‘하나님’, ‘나의 양’)이 계속해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양’(צֹאֲנִ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두 단락의 주제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1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 겔 34:02e-10h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나

28) 여기에 표기된 ‘01a’에서 알파벳 a, b, c 등의 표기의 의미는, 히브리어 본문의 한 절을 문장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단편들을 나타내며, 01a는 1절의 첫 번째 문장, 01b는 두 번째 문장을 각각 의미한다. 좀 더 세밀한 언어적 분석을 위하여 각 절을 문장 단위를 세분화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필수적인 선결작업이다.

29) “וַיִּהְיֶה + 시간표시”는 새로운 내러티브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이다. Talstra,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Leiden: Brill, 1997), 102.

30) 메이필드의 에스겔서의 문학적인 거시구조와 2차구조도 필자의 본문-언어학적 구조를 지지한다.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77-124; Par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33-35.

에서 계층구조로 06a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연결은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같은 형태의 익톨(Yiqtol)절이고, ‘양’(צאן)이라는 어근이 반복되는 참여자(‘그 양’[02h] → ‘나의 양’[06a-b])가 등장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절들은 그 유사성으로 인하여 연결될 수 있었다. 그래서 02h는 06a의 주된 정보(mainline information)로 연결되고, 03a-05c는 배경적인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라고 이해될 수 있다.

34:02h הלווא הצאן ירעו הרעים “그 목자들이 그 양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가?”

34:06a שגנו צאני בכל-ההרים ועל כל-גבעה רמה ל

“나의 양들은 모든 산들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방황해야 한다.”³¹⁾

위와 같은 계층적인 연결로 인하여, 02h절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적인 질문이 06a절의 근거로 기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그들의 불성실함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의 근거가 하나님의 양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란 말이다. 또한 이러한 연결은 집합적인 그룹인 ‘그 양’의 여러 무리들 가운데에 ‘나의’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불성실한 역할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담화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과 이스라엘 목자들의 역할에 대해 블록은 다음과 같이 필자의 본문-언어학적 분석을 지지한다.

참으로, 일차적인 관심은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있다. 그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주로 그들의 행동이 위기를

31) Van der Merw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48; 주용-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404.

촉진시켰기 때문이고, 양들의 입장에서 신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³²⁾

담화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는 것이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양들에게 있었고, 그 가운데에 ‘나의 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나의 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태로 그의 목양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4.2 하나님의 목양: 겔 34:11a-31e

11a절에서부터 수신자가 특별한 표시 없이 갑자기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너희’(2인칭, 남성, 복수)로 표현되었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17a절에서 ‘너희’(2인칭, 여성, 복수)가 ‘나의 양’(17b)을 지칭하면서 수신자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a절에서 등장하는 2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목자들’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대명사가 변화하는 것은 각 단락을 구분짓는 표시로 이해될 수 있다. 11a절에서부터 하나님(יהוה)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수신자들인 2인칭 대명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1a절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나의 양’[2인칭 여성 복수] + 그 밖에 돌봄을 받는 대상[2인칭 남성 복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도 ‘나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32) “Indeed, the primary focus is not on the shepherds but on the flock. The leaders are introduced mainly because their actions have precipitated the crisis and created the need for divine intervention on behalf of the sheep.” Block, *Ezekiel* (Chapters 25-48), 283.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의 양’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a-b절과 31a절에서 2인칭 여성 복수 대명사로 사용하면서 ‘나의 양’에 관심을 기울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참여자들의 흐름과 그 대명사의 사용을 분석해 보면,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세 그룹의 대명사로 나뉘어져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나의 양’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이며, 3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나의 양’을 제외한 악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2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나의 양’만 지칭하는 대명사로서, 2인칭과 3인칭 여성 복수(혹은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각기 다른 대명사들의 사용을 관찰하였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의 양’이 악한 이스라엘과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문에서 그 특별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a-16f절까지의 계층구조에서, 전체 이스라엘(3인칭, 남성, 복수)을 찾는 이유가 ‘나의 양’을 찾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34:11e ובקרתים, “그리고 나는 그들을(3PIM) 찾아 낼 것이다”

34:12c כן אבקר את־צאני, “그래서 나는 나의 양을 찾아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3인칭, 남성, 복수)을 돌보는 이유가 ‘나의 양’(3인칭, 여성, 복수)을 돌보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34:14a במרעה־טוב ארעה אתם, “좋은 목초지에서 나는 그들을(3PIM) 돌볼 것이다”

34:14c שם תרבצנה בנוה טוב, “거기, 좋은 목초지에서 그들이(3PIF) 누우며”

34:14d וּמְרֵעָה שְׂמֹן תִּרְעִינָה אֶל־הָרִי יִשְׂרָאֵלָהּ, “그리고 이스라엘 산들에 있는 풍부한 목초지에서 그들이(3PIF) 풀을 뜯을 것이다”

이러한 ‘나의 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15a절과 16f절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34:15a אֲנִי אֲרַעָה צֹאֲנִי,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양을 돌볼 것이다”

34:16f לֹא אֲרַעָנָה בְּמִשְׁפַּט לֹא, “나는 그녀를(3SgF) 마땅히 받을 만한 대우로 돌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찾고 그들의 땅으로 데려와 돌보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인 ‘나의 양’을 찾고 데려와 돌보며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을 직접 돌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목양의 개념은 17절 이후에서도 확인된다. 17c-22c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2인칭, 남성, 복수)을 ‘나의 양’(3인칭, 여성, 복수)과 적대적 관계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의 억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장성길은 17절, 20절, 22절 등에서 세 번 ‘심판’이 선언되기 때문에 심판이 중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³³⁾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과 양 사이의 대립과 악한 양에 대한 비난의 목적은 악한 양떼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의 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언하시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짐멜리(Zimmerli)도 22절과 관련하여, “진술의 요점은 또한 여기에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을

33) 장성길, “에스겔 34장의 언어 장치들과 텍스트의 의미에 관한 소고”, 219-222.

구원하기 위한 선언이다”³⁴⁾라고 설명한다.

23절에 나타난 다윗계열의 목자의 대한 개념에서도, 계층구조는 ‘나의 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
| 34:23a | והקמתי עליהם רעה אחד | “그리고 나는 그들(3PIM) 위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
| 34:23b | ורעה אתהו | “그리고 그는 그들을(3PIF) 돌볼 것이다” |
| 34:23c | את עבדי דוד | “나의 종 다윗을” |
| 34:23d | הוא ירעה אתם | “그는 그들을(3PIM) 돌볼 것이다” |
| 34:23e | והוא יהיה להן לרעה | “그리고 그는 그들의(3PIF) 목자가 될 것이다” |
| 34:24a | ואני יהיה להם לאלהים | “그리고 나, 하나님, 내 스스로 그들의(3PIM) 하나님이 될 것이다” |
| 34:24b | ועבדי דוד נשיא בתוכם |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3PIM) 가운데에서 왕이 될 것이다” |

전체 이스라엘(3인칭, 남성, 복수) 위에 다윗계열의 한 목자를 세우는데, ‘나의 양’(3인칭, 여성, 복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양’을 돌보기 위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특별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다윗왕조의 회복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표현으로 이해된다.³⁵⁾

지금까지 에스겔 34장 담화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주된 관심을 살펴보았을 때, 23a-30d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나의 양’과 약한 이스라엘이 모두 포함됨)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34) Zimmerli, *Ezekiel* 2, 218.

35) “For Ezekiel, the prince is more than a political or military functionary, effecting the restoration; his role begins after the restoration has been achieved by God, at this initiative, and in his time. In short, he symbolize the presence of Yahweh in the midst of his people.” Block, *Ezekiel (Chapters 25-48)*, 301.

그들을 ‘나의 백성’(30c)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그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의 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포함된 악한 이스라엘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34:22c; cf. 20:35-38).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새롭게 하심은 에스겔 34장의 결론적인 진술인 31b-d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필자는 31절의 명사 문장을 이러한 ‘나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34:31b צֹאן מִרְעִיתִי, “나의 양은 나의 목초지의 양이다”
 34:31c לֹא אִתָּם אֲהִי, “너희는(2PIM) 사람이다”
 34:31d אֲנִי אֱלֹהֵיכֶם, “나는 너희의(2PIM)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목초지에 머무는 양이 ‘나의 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이스라엘(2인칭, 남성, 복수)은 하나님의 목초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한의 ‘사람’(אִתָּם)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의 목초지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4.3 에스겔 34장의 신학적 담화

지금까지의 에스겔 34장의 담화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4:01a-02d *하나님의 선포 명령: 하나님 → 에스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34:02e-10h *하나님 →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나의 양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신적 목양의 관심 표명’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 양떼
 34:11a-31c 하나님의 양떼(‘나의 양’)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의 양떼를 보호하지만, 그중
 에 악한 양떼는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양떼는 유일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있을 것임을 천명

에스겔 34장을 본문-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목자들과 양떼, 두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에 대한 소유권을 이스라엘의 목자들로부터 찾아오시겠다 선언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양떼에 대한 더 이상의 착취와 억압을 허용치 않으시고 신적 보호와 목양적 관심을 선언하신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양떼에게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의 유일하신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양떼를 위하여 그의 종인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새롭게 하심’에 하나님의 양떼와 악한 양떼를 포함한 전체 양무리를 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한 양떼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34:22c; cf. 20:35-38). 각각의 단락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비난과 악한 무리들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지만, 담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사항은 하나님의 양에 대한 목양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 소유권을 도로 찾을 것이다 선포하신 것이고, 양 무리 전체에게는 그들을 위한 신적 목양과 악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한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신학적으로 양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스겔 34장 전체

에 변함없는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양’이라는 두 참여자들이다. 각각의 두 단락에서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두 참여자들은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에 대한 지속적인 목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로부터 그리고 악한 이스라엘부터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을 특별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악한 이스라엘이 포함된 전체 이스라엘 위에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목양을 그들을 통해 이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악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에스겔 34장의 답화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가를 드러내며 어떻게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 34장의 답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롭게 실행될 하나님의 목양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대리적인 역할로서의 이스라엘 목자들의 목양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시고, 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신적 목양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목양 프로그램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33장에서 심판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점을 이루고,³⁶⁾ 3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고려할 때, 에스겔

36) “Chap. 33 is the turning-point of the book. It concludes the part of the book which contains mostly forensic material.”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60; 조이스는 587년 이전의 에스겔 사역을 종결하는 일종의 책꽂이(bookend)로 이해함으로써 33장이 1-32장과 34-48장의 회전축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다.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144; 이학재는 ‘회복의 예언들(33-39장)’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적으로 33장을 회복의 메시지에 관한 배경과 서론으로 이해했다.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5-209.

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첫 선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적 목양이라는 사실은 전체의 회복의 메시지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적 목양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합당한 대우이자 위로인 셈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목할 회복의 요소인 것이다.

5. 나가는 말

에스겔서의 희망적인 메시지들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언어 구조로 인하여 사실상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면이 많았다. 그 이유로 필자는 최근의 세 학자들(Ganzel, Joyce, Mayfield)의 견해를 통하여 이전의 연구들이 본문 그 자체의 구조와 언어적 장치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외부적인 자료들에 의한 연구에 치중하였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본 논고는 본문의 언어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본문-지향적 독법을 시도해 보았다. 본문 언어적 분석을 통하여, 에스겔 34장의 담화가 11a에서 화자는 동일하지만(하나님) 수신자가 바뀐(이스라엘 목자들 → 양떼)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두 번의 선포임을 밝혔다. 그리고 담화의 중심적인 참여자(하나님, ‘나의 양’)가 변함없이 담화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전체적인 담화의 주제가 ‘나의 양’에 대한 신적 목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단락의 본문-언어학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에스겔 34장의 본문의 계층적 구조와 담화의 흐름을 기초로 하여 정립된 담화의 내용 즉, 에스겔 34장의 신학적인 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담화를 ‘신학적 담화’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본 논고를 통하여 필자의 본문-지향적 독법이 일반화된 주제적 성경읽기보다 더욱 본문의 흐름에 효과적인 독법임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소통하고자 하는 성경 독자들에게 제안해 본다.

<주요어>

에스겔 34장, 하나님의 목양, 하나님의 소유권, 본문-언어학, 구문적 계층구조, 담화

<Keywords>

Ezekiel 34, Divine Shepherding, Divine Ownership, Text-Linguistics, Syntactic Hierarchical Structure, Discourse

* 원고접수일 2015년 1월 26일, 수정일 2015년 2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5년 2월 27일

<참고문헌>

-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장성길, “에스겔 34장의 언어 장치들(Linguistic devices)과 텍스트의 의미 (textual meanings)에 관한 소고,” 『개혁신학』 22 (2010), 207-236.
- 주용-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홍국평, “책임 있는 해석학을 위한 제언,” 『Cannon & Culture』 6 (2012), 109-135.
- Ackroyd, P. R.,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London: SCM Press, 1968.
- Allen, L. C., *Ezekiel 1-19*, WBC 28, Dallas: Word Books, 1994.
- Allen, L.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Block, D. I., *Ezekiel(Chapters 25-48)*, Grand Rapids: WEPC, 1998.
- Block, D. I., *Ezekiel(Chapters 1-24)*, Grand Rapids: WEPC, 1997.
- Block, D. I., “Gog and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Reflections on Ezekiel xxxix 21-9,” *VT* 37 (1987), 257-270.
- Childs, B. S., *Introduction of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Ganzel, Tova, “The Descriptions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Ezekiel,” *VT* 60 (2010), 197-211.
- Greenberg, Moshe, *Ezekiel 21-37*,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 Gowan, Donald E.,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 Joyce, P. M., *Ezekiel: A Commentary*, LHBOTS 482,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9.
- Joyce, P.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 51, Sheffield: JSOT Press, 1989.
- Klein, Anja, “Prophecy Continued: Reflections on Innerbiblical Exegesis in the Book of Ezekiel,” *VT* 60 (2010), 571-582.

- Klein, R. W.,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Mayfield, T. 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FAT II:43,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Van der Merwe, Christo H. J., Jackie A., Naude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Biblical Languages: Hebrew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Park, Y. B.,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ACEBTSup 11, Bergambacht: Uitgeverij 2VM, 2013.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 Schwartz, B. J., "Ezekiel's Dim View of Israel's Restoration." M. S. Odell and J. T. Strong, eds.,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SBL Symposium Series 9. Atlanta: SBL, 2000, 43-67.
- Talstra, E., "In the Beginning, when Making Copies used to be an Art...: The Bible among Poets and Engineers," Wido van Peursen, Ernst D. Thoutenhoofd and Adriaan van der Weel, eds., *Text Comparison and Digital Creativity. The Production of Presence and Meaning in Digital Text Scholarship*, Leiden; Boston: Brill, 2010, 31-56.
- Talstra, E., "Tense, Mood, Aspect and Clause Connections in Biblical Hebrew. A Textual Approach," *JNSL* 23 (1997) 81-103.
- Talstra, E.,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Papers of the Tilburg Conference, 1996, Leiden: Brill, 1997, 85-118.
- Talstra, E., "Workshop: Clause Types, Textual Hierarchy, Translation in Exodus 19, 20, and 24,"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Papers of the Tilburg Conference, 1996, Leiden: Brill, 1997, 119-132.
- Talstra, E., "Deuteronomy 9 and 10: Synchronic and Diachronic Observations," Johannes C. de Moor, ed., *Synchronic or Diachronic?: A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OTS 34, Leiden: Brill, 1995,

187-210.

Walton, T. L., *Experimenting with Qob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belet as Discourse*, ACEBTSup 5, Maastricht: Uitgeverij Shaker Publishing, 2006.

Zimmerli, W.,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1983.

<초록>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 34장의 신학적인 담화-

박영복

(백석대신학대학원 강사)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 34장의 복잡한 본문의 문제들을 본문 자체에 집중함으로 연구하였다기보다는 본문의 외적인 자료들(예를 들어, 저작권, 자료들, 문학적 구성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필자의 견해로, 에스겔 34장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본문의 복잡한 문제들은 주로 본문 수준의 언어적 표시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참여자 혹은 참여자 집단의 이동이라든가, 화자와 청자의 담화 내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단락의 경계들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과 적절한 소통을 위해 우리는 본문의 담화구조에 필요한 본문의 언어적 데이터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에스겔 34장을 살펴보면, 선하신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전체 양무리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한 목자는 그 무리들을 가운데에 왕이 될 그의 종 다윗이다(34:23a-24c). 여기서 왕으로서의 다윗의 약속은 그 양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목양과 임재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양

에 대한 개념은 34:31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양무리들의 유일하신 목자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목초지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Abstract>

God's People by the Divine Shepherding:

Theological Discourse of Ezekiel 34

Lecturer. Young Bok Park
(Baek-seok Graduate School)

In many cases, scholars have not dealt with the textual complexities of Ezekiel 34 by focusing on the text as it stands but have instead resorted to text-external sources (e.g., authorship, sources, literary composition and even their own theological position). In my view, most of the textual complexities that have been raised in Ezek 34 are mainly due to indifference toward the linguistic signals at the text-level, such as, the shift of a participant or a set of participants, the shift of speaker and addressee in the discour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xt segment boundaries and their relation caused by the movement of participants. So, to communicate with the text properly, we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the linguistic features contributing to the discourse structure of the text.

Seen in this view of Ezekiel 34, the discourse portrays that God as a good shepherd has a particular attention to 'my flock' and claims his ownership of his flock to reorganize them as his people. God promises that he will set up one shepherd over the whole flock in order to take care of his flock. This one shepherd

is his servant David who will be 'prince' among the whole flock (Ezek 34:23a-24c). Here, the promise of David as the prince underlines the divine shepherding and God's presence with the flock. This concern of divine shepherding culminates in Ezekiel 34:31. God is the only shepherd of the whole flock, and he can judge them and also reorganize his flock into his pasture.